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 영국 설문조사, 경기악화로 인한 보험 해약 급증 예상

- 영국보험협회(ABI: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)는 2009년 5월29~6월1일 동안 2,000여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 불황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함.
-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저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, 여력이 부족하여 저축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응답이 45%인 것으로 나타났고, 15%는 정부가 저축을 늘릴 수 있는 정책 도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응답함.
  - 또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족외식을 줄이고(68%), 여행을 자제하겠다고(56%) 응답하였으며, 특히 여성 응답자들은 옷과 신발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고(60%) 응답함.
- 최근 가장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49%가 ‘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’이라고 답함으로써 경기불황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응답자 중 절반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을 가장 우려한다고 응답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체감하는 불안감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  - 남성은 43%가 우려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53%가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여성이 미래의 불안에 대해 더욱 민감한 것으로 조사됨.
  - 또한 현재의 연금 수준에 대해서도 남성은 38%만이 부족하다고 느낀 반면, 여성은 44%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여성이 느끼는 체감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가계 지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계약 등을 해약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.
-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13%가, 가계종합보험(Home Contents Insurance)에 대해서는 22%가, 건물보험에 대해서는 17%가 해약하겠다고 응답함.
- ABI는 이에 대해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의 상황에서도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안정을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거나 줄이는 일은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.

(ABI 6/9)